

전주한옥마을 설 명절 목적지 명소 1위

전주한옥마을이 설 연휴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내 여행지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임을 재차 입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쾌거다.

24일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인 현대엔소프트가 발표한 '설 명절 목적지 명소 톱10'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은 인천 소래포구와 울미도, 용인 에버랜드, 부산 해운대 등을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 명절 목적지 명소 톱10' 선정은 현대엔소프트가 지난해 5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자사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인 '맵피'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전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설 명절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에 등극했다.

한옥마을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통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손꼽혔다.

전주한옥마을은 앞서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에도 현대엔소프트 '맵피' 검색어 순위에서 가족과 함께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 1위에 오르는 등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앞서,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와 행정자치부, 전북도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이동통신과 카드 매출 데이터, 포털사이트 리뷰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기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 운영이 인기 요인

최근에는 전주한옥마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에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회 연속으로 선정되면서 국가대표 관광지임을 재차 입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바

이블로 통하는 여행잡지 '트리 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에서 전주가 당당히 3위에 등극하고, CNN을 통해 전세계에 소개되는 등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지난해 미국

CNN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관광 3대도시로 소개됐다. 또, 오는 5월에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U-20월드컵이 열리고, 제2의 다보스포럼으로 키워갈 전주 세계무형유산 포럼도 시작된다"면서 "대한민국 문화영토는 전주를 통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올 한해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문화 강국'의 꿈을 착착 일구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세계소리축제 '최고의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영예... 다양한 혜택 누릴 듯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가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소리축제는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공공행정 지역축제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소리축제가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브랜드로 지속 성장했음을 재확인하고, 올해 역시 2017 소비자가 기대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소리축제는 지난해 축제의 주요 사이트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일원화해 집중하고, 소리전당 뒤편 편백나무숲을 새로운 무대로 개발하는 등 변화와 실험을 통해 '전통의 현대화'를 일구려 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리축제는 이번 브랜드 대상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누리게 된다. 중앙일보 특집으로 수상 브랜드 소개는 물론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월간지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각종 포털 사이트·중앙일보 홈페이지 등에 소리축제가 소개될 예정이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해 "올해도 관객들의 사랑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 가을 소리축제를 방문하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영화 후반제작지원 작품 공모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저예산 예술영화(다큐멘터리)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했던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또한 상시적으로 후반제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전주영화제작소의 색보정, 디지털 마스터링과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등 보유 시설을 활용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의 후반제작지원을 함으로써 각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후반제작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로 제작 준비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로 전국의 독립영화와 영상물을 지원한다. 1분기에는 총 3편을 선정(색보정 & 사운드 2편, DCP 1편)해 후반제작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인별 1개 작품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 까지며, E-mail 신청만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cheque.jiff.or.kr)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jca.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소극장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선정결과 발표

공연문화발전소 명태·우진문화재단·창작극회 등 전북문광재단, 6개 단체·소극장에 2억4000만원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찬)은 2017 '소극장(소공연장)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극장 지원'은 열악한 연극전용 소극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품제작·공연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14개 시·군의 소공연장 활성화, 공연단체의 창작지원,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지역적 안배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올해는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아하아트홀(6,000만원), 우진문화재단·우진문화공간예술극장(4,500만원), 창작극회·창작소극장(4,500만원), 전문예술법인푸른문화·소극장 관(3,000만원), 극단 사람세상·사람세상 소극장(3,000만원),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아르케소극장(3,000만원) 등 총 6개 단체·소극장을 선정해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은 전북 소재 문화회관, 공공 공연장, 공연장 상주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연제작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추진할 창작초연 작품제작, 우수 레퍼토리공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주단체의 역량에 초점을 뒀다. 올해는 8개 공연장·9개 단체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은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문화포럼나리네(6,500만원), 한국전통문화전당·(사)타악연희원 아귀(6,500만원), 정읍시예술회관·전북발레씨어터(7,000만원),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극단 까치동(6,500만원), 장수한누리전당·(사)달란트마을(6,000만원), 순창향토회관·(사)드림필(6,500만원), 고창문화의전당·국악예술단 고창(7,000만원), 부안예술회관·전북예술문화원(6,500만원) 및 포스댄스컴퍼니(5,500만원),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문화포럼나리네(6,500만원), 한국전통문화전당·(사)타악연희원 아귀(6,500만원), 정읍시예술회관·전북발레씨어터(7,000만원),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극단 까치동(6,500만원), 장수한누리전당·(사)달란트마을(6,000만원), 순창향토회관·(사)드림필(6,500만원), 고창문화의전당·국악예술

단 고창(7,000만원), 부안예술회관·전북예술문화원(6,500만원) 및 포스댄스컴퍼니(5,500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문화영토 관(3,000만원), Alive Art Project(2,000만원)는 예비상주 단체로 선정됐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 '설날 한미당 큰잔치' 행사

군산군대역사박물관이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향객에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 연휴기간 '설날 한미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투호놀이,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설 당일에는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며, 오후 1시30분부터는 소담소리아트(대표 김금희)와 함께하는 전통 국악한미당이 펼쳐진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군산재능시낭송회에서 오후 2시부터 '우리가 어느 별에서 왔기에'라는 주제로 시낭송이 이어진다.

설 연휴 기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016년 한 해 관람객 100만 명 방문 기념 특별전이 열린다. /군산=문정곤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일정 확정... 6월 2-6일

2013년에 첫 영화소풍을 시작하여 지난 4년간 영화를 사랑 하는 관객과 함께 착실하게 성장해온 설렘, 울림, 어울림의 무주산골영화제가 2017년 그 다섯 번째 영화소풍 일정을 확정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금)부터 6월 6일(화)까지 5일간 무주체문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화제 중 하나인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에도 청정 무주의 파란 하늘과 푸른 숲을 배경으로 연선된 국내의 영화들과 다채로운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작지만 알찬 영화제로 관객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으로 매년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 한국영화를 선정해 상영해온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썬' 섹션의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극장개봉 여부와 장르에 관계없이 2016년 8월 1일 이후 제작이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장편영화라면 지원 가능하다. '창 썬' 섹션에서는 총 10편 내외의 작품이 상영되며, 뉴비전상, 전북영화비평포럼상, 무주관객상 총 3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 1,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무주=전순진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25일>

▷쥐띠
48년생: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쁨이 가득한 운이다.
60년생: 힘든 일이 있어도 귀인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며 큰 변동은 없는 운이다.
72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다.
84년생: 홀로 해결해야 하는 운이니 타인에게 의지하지 마라.

▷소띠
49년생: 급하게 진행하면 무리수가 따른다.
61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3년생: 타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니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85년생: 아직은 기운이 미약한 상황이니 뒤로 물러서라.

▷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생긴다.
62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니 처음부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적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인다.

▷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니 나중에는 편안해지니 마음을 안정시키라.
63년생: 베푸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헛사람의 덫이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 것.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
64년생: 문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상대도 나와 같이 자중하라.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웃을 일과 언쟁은 일이 같이 있겠다.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검토는 필수.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라오는 회기를 가리안하라.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막히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니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양띠
55년생: 문서에 걸힘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소화가 게똥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라.

▷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자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가기 때와 뒤로 물러날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생각 없이 한 언행으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하라.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어 할 때.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만한 실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